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니 주인공에 되라

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질문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법을 배워야 하는지요? 그리고 불법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는 불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고, 인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즉 불법은 우리의 인생에 목표를 밝혀 주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부자유하고 그나마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아무도 원치 않는 완전한 무(無)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이란 길어야 백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때의 영화도 인생이 끝나는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막막한 허무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처자, 친지, 지인(知人)들도 자기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오직 자기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 자기 혼자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의 이웃이나 벗들, 가족들이 나의 고통과 번뇌를 덜어 주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집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께서는 그래서 산다는 것을 고통(苦)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란 사실 우리가 가장 즐겁고 기뻐할 그때에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수많은 현인들이 깊이 느껴 온 인생의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그런 실제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성취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이며, 인생의 목표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부처를 이루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능력

질문 경전에 보면 “나는 성인 가운데 다시 성인이며, 일체 세간의 아버지이나라. 이 삼계는 모두 나의 소유이고, 그 가운데 중생 모두는 나의 자식이라. 나만이 능히 이들을 구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잘것없는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능력은 제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차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능력을 저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 부처님께서께서는 이 세상 일체 아니 되시는 게 없고 나아님이 없고 내 자리아님이 없고, 평발 하나로써 모두 다했다는 것을 표현해서 천

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현재 이렇게 나와서 이 세상을 다, 여러분을 다 건졌느니라 하는 뜻에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고정됨이 없이 공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자리가 돌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항상 같이 있느니라, 평등하나라 하는 뜻에서, 나오셔서 휘휘 둘러보신 겁니다. 일곱 발자국을 디딘 것은 그 평등한 실천공행이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빼놓고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므로

부처 될 가능성이 99%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를 알고 평등한 진리도 알기 때문에 99%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 이하의 생명들도 청각이나 시각이나 후각이 아주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서부터 구름으로, 안개로, 가스로, 복사체질로 변해 가지고 시각 청각 후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은 부처님의 뜻도 있지만,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 한생각에 중생들이 모두 건져졌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왜 건져졌느니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새록새록 생각을 낼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진리는 평등하고 예전에도,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먹어 보지 않고 해 보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은 생각도 안 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서서 우리의 참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설하신 그 뜻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바로 불제자의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분별한다면 불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벌레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벌레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침착하게 놓으세요. 모르는 사람을 본다면 과거에 내가 모를 때의 그 모습으로 보시고,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을 본다면 바로 배우기도 하고 '바로 내 마음속의 주인공 안에서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뜻을 바로 알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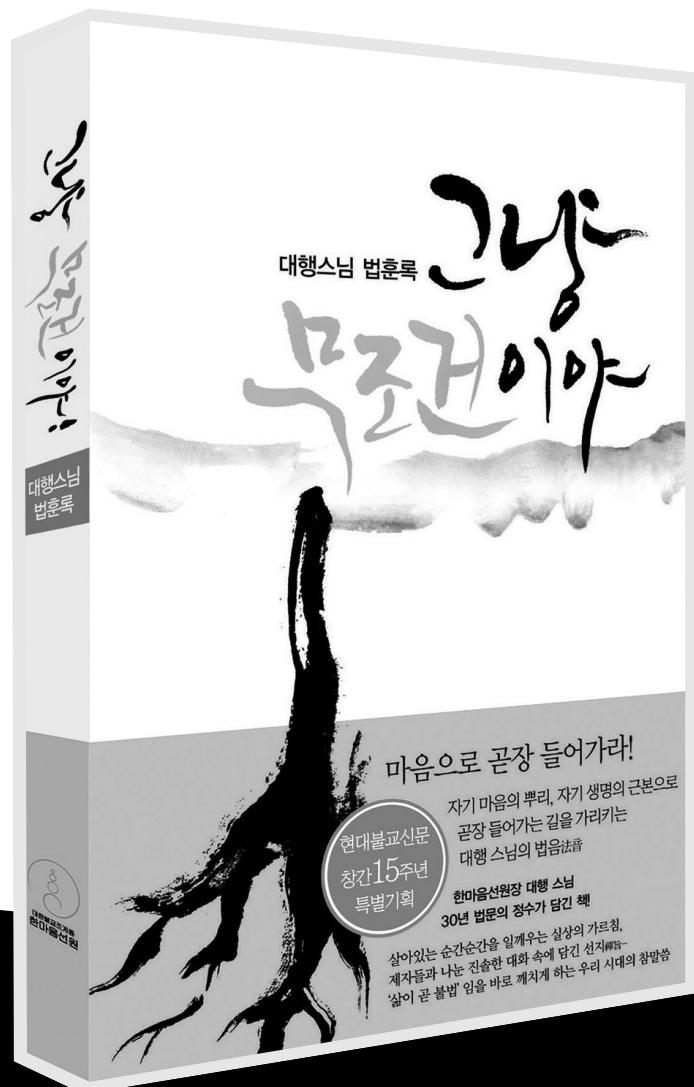
그리고 '높은 것을 봐도 높게 보지 말고' 하는 것은, 저 부처님도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이니 항상 위로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리드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데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을 기르는 거와 같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뜻이 그런 거죠. 그러니 위로 부처님을 모시는 거하고 아래로 중생들을 이롭게 리드해 나가는 것을 싸잡아서 나는 주인공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주인공! 어떠한 거든 높게 두지도 않고 낮게 두지도 않고, 또 주인공 안에는 일체제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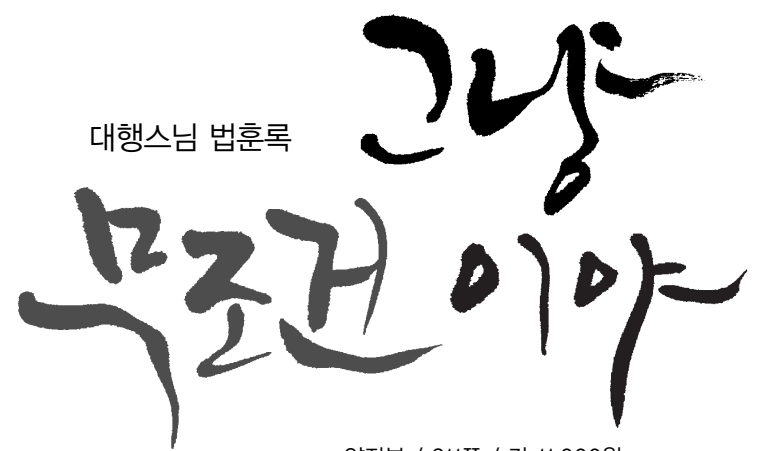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